

글로벌 시민 역량 함양 교과목의 효과 분석

송영숙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Cultivation Course

Youngsook Song
Baird General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대학교 교양교과목인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의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t검정과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글로벌 역량의 하위 역량인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인 설득 및 조정 능력을 제외하고 모든 역량 즉, 글로벌 적응 주도력, 다문화 수용력, 글로벌 역량, 의미전달력, 공감 능력, 경청 능력, 의사소통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값이 향상되었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외국어 능력, 설득 및 조정 능력에 대한 활동을 보완하고, 토론과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자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Global Issues and Civic Competencies」, a liberal arts course at S University in Seoul. To this end, the pre-post tests administered to students taking this course in the spring semester of the 2022 school year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d Wilcoxon code ranking tes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competencies: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ability, multicultural capacity, global competence, ability to convey meaning, empathizing ability, liste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he average of the competencies improved.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supplement activities on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ability to persuade and coordinate that did not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and to continue to strengthen learners' participation and practice through discussion and team project activities. Students can thus be guided to become aware of the good effects of these activities.

Keywords : Civic Competencies, Global Issues, Course Effects, Liberal Arts, Undergraduate Students

1. 서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1].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시민역량을 갖춘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였다.

글로벌화의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각국에서 봉쇄하면서 글로벌화가 주춤하는 듯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Song(Soongsil Univ.)

email: yssong@ssu.ac.kr

Received July 18,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August 21,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하였으나, 메타버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형태의 글로벌화는 오히려 다양화되고 지속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가 되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 다니지 못한 해외 여행, 출장 등의 증가로 다양한 국가간의 이동 및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혁명의 발달과 함께 비대면 형태의 글로벌화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민역량의 함양이 한층 중요해지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 교과목들도 새롭게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다[2-6].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도 대학생의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7]. S 대학교에서도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목들이 새롭게 개발·개설되고 있다. 그간 S 대학교에서는 교양선택 교과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필수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개발된 교과목이 의도된 교육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 대학교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개발한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 분석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생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 타대학 교과 사례

글로벌 시민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타대학의 교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은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글로벌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몇몇 교과목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부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지원으로 국내 다수 대학에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정규 교과목이 개발·개설되고 있다[7]. 그간 글로벌화의 흐름과 맞물려 글로벌 시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과목

들이 대학내 정규 교과목으로 개발·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Table 1.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cultivation courses of other universities

University	Name of Course	Content
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course is a team teaching class by two professor with the goal of a responsible citizen who broadly understands and practices global peace,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H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This course is a liberal arts essential class in the form of lectures by professors on topic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d presentation classes by students
H	The world culture in movies	This course is a online liberal arts class to discuss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in films from various countries such as Greece, Ire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etc.
C	The world culture through cinema	This course is a liberal arts class composing of watching movies, writing discussion questions, mutual discussion, writing thoughts and sharing
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leadership	This course is an essential liberal arts class that deals with global issues such as human rights, cultural diversity etc. and conducts discussions and team projects.

2.2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수행되었다. [8]은 Texas A&M University 경상대학에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된 30개 교과목을 선정하고, 이들 교과목을 수강한 768명의 글로벌 역량 차이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8]의 연구결과, 학생들의 글로벌 인식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친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의 연구에서도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함양을 위한 교과목을 수강한 25명의 학부생을 혼합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양적 방법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 방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신입생 대상 교양필수 교과목의 효과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한 [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양필수 교과목은 신입생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은 아니지만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한 [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K-CESA 글로벌 역량의 하위역량 중에서 유연성,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타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교과목의 구성

서울 소재 S대학교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을 개발하여 2020학년도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간 코로나 상황에서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과 학습동영상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형태의 온·오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구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Global Issues and Civic Competencies」

Week	Contents
1	Orientatio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Meaning, and type of Citizens Understanding global citizenship, civic competency, and civic society
2	Causes of globalization Meaning, type of globalization Resistance to globalization
3	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citizenship Cosmopolitanism Communism
4	Globalization and change in life The darkness of global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the world
5	Global issues overview: human rights, multiculturalism, poverty, health, environment, and peace Discover global issues
6	The meaning of human rights The spread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men, etc.

7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y
8	Global inequality Global poverty
9	Global health status and problems Globaliz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10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blems
11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lobal peace threats
12	Characteristic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issues and civic education
13	Globalization, capitalism and democrac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Understanding and diffusion of democracy Group presentations
14	Understa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lobal issues Group presentations
15	Group presentations

글로벌화, 시민역량, 글로벌 이슈 등 Table 2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동영상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습동영상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대면수업에서 하브루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하브루타 토론은 질문형 하브루타 유형으로 짝 토론, 그룹 토론, 전체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 개발과 경청을 실시하고, 최고의 질문을 뽑고, 전체 정리하는 쉬우르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2]. 또한, 팀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인권, 다문화, 빈곤, 보건, 환경, 평화중에서 각자 관심 있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팀을 꾸려서 현장에서 글로벌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팀 활동을 한 학기에 걸쳐서 수행하고 팀활동 성과를 발표하여 공유하였다.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평가는 출석을 비롯하여 하브루타 토론 활동(활동지 작성)에 대한 평가, 팀 활동(성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2022학년도 1학기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을 수강한 학습자들 중에서 사전, 사후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습자들이다. 연구참여자의 현황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17명으로 60.7%, 여자는 11명으로 39.3%로 나타났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은 5명(17.9%), 2학년은 14명(50.0%), 3학년은 8명(28.6%), 4학년 1명(3.6%)으로 나타났다. 소속대학을 살펴보면, 인문대학은 14.3%(4명), 법과대학은 3.6%(1명), 사회과학대학은 10.7%(3명), 경

제통상대학은 7.1%(2명), 경영대학은 28.6%(8명), 공과대학은 17.9%(5명), IT대학은 14.3%(4명), 융합특성 3.6%(1명)으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7	60.7
	Female	11	39.3
Year	1	5	17.9
	2	14	50.0
	3	8	28.6
	4	1	3.6
College	Humanities	4	14.3
	Law	1	3.6
	Social science	3	10.7
	Economics and trade	2	7.1
	Business	8	28.6
	Engineering	5	17.9
	IT	4	14.3
	Convergence	1	3.6

3.3 조사 도구

S 대학교는 학부생을 위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12]. S 대학교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창의 역량,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역량, 글로벌 역량의 S대학교 핵심역량을 자기보고식 형태로 진단하는 도구로 총 10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대학교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S 대학교 핵심역량 모델링을 바탕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개발되었다. S대 핵심역량 진단도구에서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에서 의도한 학습성과인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진단하고 있기에 S대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Cronbach 알파값은 다음 Table 4과 같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수용력을 제외하고 모두 0.6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Table 4. Reliability test

Variable	Numbers of Items	Cronbach's Alpha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5	.866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5	.766
Multicultural capacity	5	.440
Global competence	15	.728

Ability to convey meaning	5	.834
Empathizing ability	5	.816
Ability to persuade and coordinate	5	.915
Listening ability	5	.859
Communication competence	20	.935

작은 수의 샘플로 인해 정규성 검증을 위해 50개 미만 3개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hapiro-Wilk를 사용하였다. Shapiro-Wilk의 값의 p값이 0.05 이상이면 정규성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a도 실시하였다.

Table 5. Normality test

Variable	Kolmogorov-Smirnov	p	Shapiro-Wilk	p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098	.200*	.939	.104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ability	.138	.188	.961	.378
Multicultural capacity	.117	.200*	.966	.467
Global competence	.195	.008	.907	.017
Ability to convey meaning	.183	.017	.915	.026
Empathizing ability	.229	.001	.851	.001
Ability to persuade and coordinate	.282	.000	.847	.001
Listening ability	.176	.027	.911	.021
Communication competence	.182	.018	.888	.006
posttest_Foreign language proficiency	.145	.137	.939	.104
posttest_Global adaptation initiative ability	.226	.001	.910	.020
posttest_Multicultural capacity	.099	.200*	.961	.378
posttest_Global competence	.137	.189	.966	.481
posttest_Ability to convey meaning	.264	.000	.791	.000
posttest_Empathizing ability	.170	.037	.880	.004
posttest_Ability to persuade and coordinate	.237	.000	.821	.000
posttest_Listening ability	.212	.002	.833	.000
posttest_Communication competence	.166	.046	.879	.004

4. 연구 결과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전·사후의 비교를 위하여 t검정과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사용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정규성 검증 결과 정규성이 나타나는 외국어 능력, 다문화 수용력에 대해서는 t검정을 실시하고, 정규성 검증 결과 정규성이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역량에 대해서는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6. The Result of pre/post tests

Variable	Type	Mean	SD	t/Z	p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pre	2.79	.589	-.804	.429
	post	2.86	.762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ability	pre	2.99	.535	-2.926	.003**
	post	3.30	.500		
Multicultural capacity	pre	2.66	.477	-2.524	.018*
	post	2.96	.626		
Global competence	pre	2.81	.356	-3.086	.002**
	post	3.04	.534		
Ability to convey meaning	pre	3.19	.490	-2.261	.024*
	post	3.41	.485		
Empathizing ability	pre	3.06	.505	-3.155	.002**
	post	3.39	.513		
Ability to persuade and coordinate	pre	3.28	.503	-.881	.378
	post	3.34	.458		
Listening ability	pre	3.29	.497	-1.996	.046*
	post	3.41	.454		
Communication competence	pre	3.20	.419	-2.590	.010*
	post	3.39	.449		

*p<0.05, **p<0.01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역량의 하위 역량인 외국어 능력,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인 설득 및 조정 능력을 제외하고, 모든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역량의 하위 역량인 글로벌 적응 주도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인 공감 역량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역량의 하위 역량인 다문화 수용력,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역량인 의미전달력, 경청 능력, 의사소통 역량은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사후 검증결과, 외국

어 능력과 설득 및 조정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외국어 능력과 설득 및 조정 능력에 대한 학습 활동이 본 교과목을 통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S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하위역량을 포함해서 진단과 사전·사후 검증을 하게 된 것이다. S 대학교 핵심역량의 글로벌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외국어 능력과 설득 및 조정 능력을 하위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교과목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적응 주도력, 다문화 수용력, 글로벌 역량, 의미전달력, 공감 능력, 경청 능력, 의사소통 역량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글로벌 역량의 수업전 평균은 2.81점이었으나, 수업후 평균은 3.04점으로 상향되었다. 의사소통 역량의 수업전 평균도 3.20점이었으나, 수업후 평균도 3.39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량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8-10)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비대면과 대면수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형태의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수업 효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학습자들의 참여와 실천을 촉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기 보다는 태도와 실천 차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학습동영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하브루타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논의하고, 교실 밖 현장의 글로벌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6주~7주간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시민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은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생 글로벌 시민역량의 함양에 있어 지식, 태도와 실천을 넘어서 학교 안팎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학습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는 특성을 갖는 팀 프로젝트는 교실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찾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교양교과목 과제로 하는 팀 프로젝트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로 시작한 학습자들이 인터뷰 실시, 동영상 촬영, 공모전 참여,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

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응원하는 타인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작은 시도와 노력이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학습자들에게 팀 프로젝트 결과, 정도와 크기에 상관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주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지식, 태도, 실천을 넘어서 팀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자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민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S 대학교 교양교과목인 「글로벌이슈와시민역량」 교과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고, 대조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두어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겠다. 둘째, 양적 방법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질적 방법을 활용하거나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의 완화로 학습동영상과 대면수업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후 전면 대면수업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업 방식의 변화 예를 들면, 대면 수업 방식, 비대면 수업 방식,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 방식에 따른 교육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D. S. Rychen, L. H. Salganik,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Strategy paper.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2. pp.10-14.
- [2] Y. S. Song, "A case study of course development for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global citizenship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2, No.4, pp.99-116, Dec. 2021. DOI: <http://dx.doi.org/10.20512/kjace.2021.12.31.116>
- [3] S. G. Jeong, H. G. Huh, H. S. Kim, "Development and executing case of the liberal art course for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 focu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2, No.2, pp.89-107, Dec. 2018.
- [4] Y. H. Shi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liberal arts class about cultural diversity for foreign students",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23, pp.143~168, April, 2023. DOI: <http://dx.doi.org/10.24173/jge.2023.04.23.5>
- [5] J. T. Chang, "A study on media literacy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odel through fil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2, pp.1171-1184, April,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2.83>
- [6] H. E. Le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movies: The distant other and technologies of imagery",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12, No.2, pp.287-320, June, 2019. DOI: <http://dx.doi.org/10.14431/jms.2019.06.12.2.287>
- [7] E. G. Kim, S. B. Min, S. M. Lee, H. R. Kim,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iversity course 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Vol.15, No.1, pp.33-50, April, 2020. DOI: <https://doi.org/10.35179/jeiu.2020.15.1.33>
- [8] S. Reysen, L. W. Larey, I. Katzarska-Miller, "College course curriculum and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Vol.4, No.3, pp.27-40, Sep. 2012. DOI: <http://dx.doi.org/10.18546/IJDEGL.04.3.03>
- [9] I. W. Schutte, E. Kamans, M. Wolfensberger, W. Veugelaers, "Preparing students for global citizenship: The effects of a Dutch undergraduate honors course",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pp.1-12, 2017. DOI: <https://doi.org/10.1155/2017/3459631>
- [10] K. A. Kim, "A case study on 'Global Citizen Education and Leadership' a liberal arts course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Finding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Vol.12, No.3, pp.255-277, June, 2018.
- [11] E. J. Kim, M. H. Seong,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aimed at cultivating interpersonal skills and glob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and the verification of its effect",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Vol.16, No.3, pp.213-237, 2016.
- [12] Y. S. Song,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re competency diagnosis system for undergraduates: a case of a Korean univers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4, pp.1-21, April,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4.1>

송 영 숙(Youngsook Song)

[정회원]



- 2008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 2015년 4월 ~ 현재 :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비전 수립,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 청년, 여성 및 노인 인적
자원개발